

이달의 어항 ④ - 강원도 속초시 대표동에 위치한 대포항

속초의 관광명소, 대포항

연간 100만 명이 찾는 관광어항



110m), 물양장 740m, 선양장 80m, 준설 23,503m, 천수호안 338m가 완공되었고, 수산현황은 전업 156가구 291명, 겸업 77가구 34명, 지방어선 103척이 있으며, 오징어, 가자미, 잡어 등이 주 어종으로 연간 어업생산량은 994MT이다.

사실 대포항이 주목되는 데에는 기존의 유명세 외에도 하나의 이유가 있다. 동해

안 수산물의 집산지이자 설악산 관광명소로서 관광객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온 대포항은 관광어항으로 유명해지면서 이제는 포화상태에 이를 정도로 선박이 늘어났고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북적인다. 심지어는 배에서 잡아온 고기를 풀어놓을 공간도 없을 정도로 비좁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09년까지 846억원을 투입, 21세기형



‘다가는 종합어항’으로 탈바꿈해 새로운 어항개발 모델을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대포항의 다가는 종합어항 계획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던 어항 개발이 지역단위 개발 계획을 토대로 지자체, 중앙정부, 지역주민, 민간사업자가 동참하는 첫 시험작이라는 것과 향후 유사개발의 모범적 사례로써 어항개발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포항 주위의 관광명소로는 신흥사와 주변의 권금성이 있다.

먼저 설악산 외설악의 평탄한 지형에 자리 잡은 신흥사는 652년 진덕여왕 6년에 자장율사에 의해 창건된 절이다. 신흥사의 극락보전 앞마당에 서서 주변의 산을 바라보면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봉우리가 있다. 남쪽에 있는 봉우리는 달마봉이라 불리우며, 북쪽에 있는 봉우리는 미륵봉이라 불리운다. 이는 산봉우리의 형세가 걸망을 짚어진 것처럼 생긴 달마봉이 북쪽의 미륵불에게 머리를 조아려 인사하는 형태와 비슷하기 때문에 생긴 명칭이라 한다. 절 입구의 청동석가여래좌상은 동양최대규모의 청동좌불상이다.

신흥사에서 발길을 옮기면 남쪽으로 우뚝 솟은 해발 770미터의 봉우리. 하늘과 가까운 곳, 권금성이 있다. 정상에 오르면 337미터의 성터를 발견하게 되는데 성벽은 거의 허물어져 터만 남아있다. 1253년 몽고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세워진 곳으로 권씨와 김씨의 두 장수가 하룻밤에 쌓았다는 전설에서 권금성이 유래했다. 산위에 올라가면 자연에 취해 권금성 봉우리의 웅장함에 취해 사람과 사람에 취해 구름과 푸른 하늘을 벗 삼아 바위에 걸터앉거나 누워있는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대포항에서는 오징어, 황태, 미역, 다시마, 노가리, 양미리, 젓갈류 등의 별미를 즐길 수 있다. ‘까마귀를 즐겨 먹는 성질이 있어서 날마다 물위에 떠 있다가 까마귀가 이를 보고 죽은 줄 알고 쪼려 할 때 발로 감아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 잡아먹는다고 해 오적(烏賊)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오징어는 최근에는 오징어 불고기로 변신하여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물오징어의 앞뒷면에 칼집을 내고 양념장을 바른 후 숯불 석쇠위에 구워먹는 오징어불고기는 어느새 애호가들 사이에서 대포항의 새로운 맛으로 자리 잡고 있다.

♣ 가는 길 - 속초고속터미널 → 대포동 (5분소요)

인적이 드문 미개척지를 찾는 기분으로 새로운 지역을 방문하는 재미가 있는 곳이 있다면 찾는 이가 많아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으나 그것이 역으로 이미 여러 사람에게 검증받았다는 장점이 되기도 하는 지역이 있다. 이번에 소개할 대포항은 후자에 해당하는 곳으로 이제는 너무나 유명해져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인 곳이다. 속초에 가면 꼭 들러야 하는 관광필수코스, 대포항에 가보자.

관광성수기나 비수기에 상관없이 주말이면 언제나 많은 사람으로 넘쳐나는 대포항은 일단 설악산과 가깝고, 7번 국도변에 위치해 있어 쉽게 찾아갈 수 있다. 무엇보다도 대포항이 이렇게 유명세를 타게 된 것은 주차장 옆길에 500미터 이상 늘어선 활어날전 때문이다. 고구 소쿠리에 갖가지 활어를 담고 즉석에서 회를 쳐주면 주변에 마련된 간이식당에서 초고추장과 마늘, 고추 등을 간단히 구입해 회를 먹을 수 있다. 매운탕까지 풀코스 서비스는 물론이다.

강원도 속초시 대표동에 위치한 대포항은 1971년 국가어항으로 지정. 1988년 시설물 안전도 진단을 시행하고 1997년 어항시설정비계획을 실시한 후 2002년 해양수산부와 속초시간 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했다. 시설현황을 살펴보면 동방파제 960m(잔량 500m), 남방파제 230m(잔량